안무자 연대기로 살핀 도립무용단 30년

도문진원 '…30년사' 발간
1990년 도립민속예술단서
2008년에 도립무용단으로

1대~8대 활동상과 인터뷰
50여 회 정기공연 등 연보

제주도립무용단 30년사.

지난해 11월 열린 제주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이여도사나-생명편'. 사진=제주도립무용단 제공

1990년 3월 제주도립민속예술단으로 출발했고 1997년 제주도립예술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200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뀐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상임·비상임을 합쳐 도내외 7명이 안무자를 역임했거나 현재 몸담고 있다. 별도 예술감독제를 둘 때는 2명이 그 자리를 거쳐갔다. 지금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체제다. 예술단의 역량을 한껏 드러내는 정기공연 횟수는 창단 첫해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 무용극 '생불화'를 올린 이래 50회가 넘는다. 도내 대학에 여태 무용학과 하나 없고, 민간 전문 무용단의 수도 제한된 탓에 도립무용단의 발자취는 곧 제주도 무용의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다.

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 30년의 여정을 최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430여 쪽 분량의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30년사'(이하 30년사)다. 연대기, 특별기고, 역대 안무자 인터뷰, 연혁과 공연 연보 등으로 짜인 책이다.

무용단이 걸어온 길을 집약해 보여주는 30년사의 연대기는 '안무자 시대'로 나눠 서술했다. 지휘봉을 잡은 예술감독이나 안무자에 따라 예술적 색채가 크게 달라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1대 김희숙 안무장 및 상임안무자(1990~2000), 제2대 김정학 상임안무자(2000~2003), 제3대 양성옥 비상임안무자(2003~2007), 제4대 김정희 상임안무자(2007~2009), 제5대 양성옥 비상임안무자(2009~2010), 제6대 배상복 안무자(2010~2016), 제7대 손인영 상임안무자(2016~2018), 제8대 김혜림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2018~현재) 시대로 구분해 안무자의 예술적 성격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무용단의 활동을 살폈다.

안무자 시대로 펼친 연대기는 뒤이은 역대 안무자 인터뷰와 맞물리며 도립무용단의 어제와 오늘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전망을 모색했다. 이들 중 전·현직 안무자 5명은 지난해 7월 도립무용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한 온라인 공연 '명불허전' 무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30년사 특별 기고는 제주도립예술단 시절이던 2000~2007년 상임 예술감독을 지낸 김기원 희곡작가, 이창훈 한국무용협회 제주지회 고문, 강문칠 음악평론가이자 작곡가, 김호연 춤평론가, 이병준 춤이론가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공연 연보는 도립민속예술단, 도립예술단, 도립무용단 시기별 정기공연은 물론 상설공연, 찾아가는 무용단, 도외 공연, 특별공연 목록 등을 담았다. 비매품. 연락처 710-764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봄날, 제주의 서재' 운영

제주시가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주)대교 그룹과 협업해 이달 20일까지 '봄날, 제주의 서재' 온·오프라인 기획전을 열고 있다.

'봄날, 제주의 서재' 오프라인 전시는 서울 성수동 세가방 북스토어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 기간 동안 2020년 제주 책방예술제 책섬[썸 :]에 참여한 제주 동네책방 10곳의 편지와 독자들이 취향에 맞게 골라 읽을 수 있는 큐레이션 책을 소개한다. '봄날, 제주의 서재'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제주 동네책방이 선정한 책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책방지기의 큐레이션 카드와 세가방 굿즈도 무료배송 받을 수 있다.

김만덕객주 초가지붕 잇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김만덕객주 8개 동의 초가지붕 교체 작업이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입춘을 전후한 시기에 초가지붕을 새로 만들어 얹는 풍습이 있었고 김만덕객주에서도 2015년부터 매년 2월 해풍과 습기를 견뎌온 초가지붕을 교체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서 맡아 집줄놓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에도 김만덕객주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초가지붕 재료는 한라산 기슭 초원지대에서 자생하는 새(띠, 황모)를 사용한다. 문의 800-9335.

'아이돌보미' 25명 모집

제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홍석윤)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아이돌보미'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 양육 공백 가정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선발되면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하게 되며 기본 시급과 수당을 받는다.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care.idolbom.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문의 725-9005.

동녘도서관 '고전 강독'

동녘도서관은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비대면 고전강독: 내 마음의 무늬를 찾는 인문 고전'을 운영한다.

'고전강독'은 고전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강은미(문학박사) 강사의 지도로 ▷동양 고전: 논어 읽기 ▷문학 고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철학 고전: 국가론을 주제로 고전 작품을 함께 읽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5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낮 12시) 총 8회 과정으로 온라인(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로 운영된다. 참가자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동녘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청년 예술 진입기·성장기 집중 지원

제주문예재단 지원사업
'처음 발표' 등 3개 유형

제주 지역 청년 문화예술 활동의 진입기와 성장기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2021년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지난 10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원사업과 기획사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원사업은 ▷단독·개인 발표를 갖지 않은 예술가와 기획자의 처음 발표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 처음 발표 지원 사업'(최대 5명, 최대 400만원 지원) ▷경쟁력 있는 제주 지역의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사업'(최대 7명(팀), 최대 1000만원 지원) ▷청년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 예술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사업'(최대 6명(팀), 최대 500만원 지원)으로 나뉜다.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처음 발표 지원 사업은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24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이뤄진다.

기획사업은 종전 발전기에 초점을 맞춘 '청년 공간기반 기획 프로젝트 사업'에 인큐베이팅 과정을 더한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확장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5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 800-9154, 9159.

진선희기자

동화 같은 화면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이진원·김현서 작가 초대
갤러리 ICC 에이블 아트전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제주의 청년 작가들이 있다. 갤러리 ICC 제주가 지난 15일부터 펼치고 있는 에이블 아트 이진원·김현서 초대전이다.

에이블 아트는 '가능성의 예술' 또는 '장애의 예술'을 뜻한다. 장애에 상관없이 예술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표현하는 예술을 보여준다.

이진원·김현서 작가는 발달장애 청년들이다. 이진원 작가는 발달장애인 작가들로 구성된 '아트림' 소속으로 2019년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특선 수상 경력이 있고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작가 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김현서 작가는 2018년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회 대상, 제주농아복지관 장애인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두 작가는 이번에 인물과 동물 등을 소재로 그린 원색의 색감을 통해 순수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이진원 작가는 '윤희 이모와 친구들', '이은주 선생님' 등을 선보이고 있다. 김현서 작가는 '꽃병과 고양이', '카페' 등을 출품했다. 특히 이진원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관통하는 주제를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화면 속 인물들이 무언가 꿈틀거리며 이야기를 건네오는 듯 하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이어진다. 갤러리는 ICC 제주 3층에 있다. 문의 735-1086.

진선희기자

이진원의 '윤희 이모와 친구들'.